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7期(2025.12.10) WWW.MINGHUI.ORG

한글판 1031호 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하여, 12월 2일에 끝났습니다.

주 요 내 용

【수련교류】 중국법회 문장 읽은 해외 수련생 정념이 생기다

【중국법회】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생사를 내려놓고…

【중국법회】 두려움, 쟁투심, 악의를 내려놓자 자비심이 나오다

【중국법회】 소업 중에 일사일념을 안으로 찾다

【중국법회】 진상을 알리는 지혜는 법에서 온다

〈목차〉

■ 해외종합

중국법회 문장 읽은 해외 수련생 정념이 생기다	3
---------------------------	---

■ 중국법회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생사를 내려놓고 신을 향해 나아가다	14
두려움, 쟁투심, 악의를 내려놓자 자비심이 나오다	24
소업 중에 일사일념을 안으로 찾다	36
진상을 알리는 지혜는 법에서 온다	47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법회 문장 읽은 해외 수련생 정념이 생기다

(호주기자단 보도) 2025년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명혜망은 제22회 중국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심득교류회의 90편의 법회 교류 원고를 잇달아 발표했다. 명혜망이 주최하는 연례 중국법회는 국내외 대법제자의 한 차례 중요한 성회다. 호주 파룬궁수련자는 이것이 자신의 수련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이며, 마치 중국법회에 참가한 것과 같이 큰 도움을 받았다.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 대법의 위대함, 법에 대한 수련자들의 확고한 신념, 사람을 구하는 긴박감은 호주 수련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련자들은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명혜망과 중국 수련자에게 감사하며, 해외 수련자가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의 많은 부족함을 찾고 수련의 엄숙함과 신성함을 일깨웠으며, 또한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정념정행(正念正行)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애들레이드 수련자 천(陳) 씨는 말했다. “매년 명혜망이 개최하는 중국법회 수련 체험을 읽거나 듣는 것은 제 수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입니다. 마치 중국법회에 참가한 것과 같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 대법의 위대함, 법에 대한 수련자들의 확고한 신념, 사람을 구하는 긴박감이 제 마음을 흔들고, 온몸이 자비의 거대한 에너지에 녹아들며 매번 감동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천 씨는 ‘당신이 과감히 말하면 그는 과감히 탈퇴한다’를 읽었다. “글에서는 수련자가 두려워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해 대면하여 진상을 알리는 수련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보니 안 되겠다, 내가 말을 못 하겠다. 저 사람을 보니 나쁜 사람 같다, 감히 말을 못 하겠다’에서 나중에는 ‘당신이 과감히 말하면 그는 과감히 탈퇴한다’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과감히 말하는 것’은 수련자가 시련을 겪는 과정을 통해 도달한 경지이며, 그래야만 상대방을 ‘과감히 탈퇴시킬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20년을 견지하며 매일 걸어 나가 사람을 구하다’의 글쓴이 수련자는 말했다. “저는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 나이가 많은 적든 상관없이 매일 반드시 해야 할 큰일,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저는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또 한번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 상대방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을 했다. “당신처럼 80대인 나이에는 집에서 만년을 즐겨야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글쓴이는 말했다. “얼마나 많은 대법제자가 온갖 고생을 겪고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해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기를 희망해서입니다.” 천 씨는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고, 중생구도에 대해 이 수련자가 느끼는 긴 박감에 충격을 받았다.

천 씨는 말했다. “대조해 보면, 해외의 느슨한 환경 속에서 저는 때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제 안일한 마음을 덮어 감추고, 이런 틀에 박힌 상태에 만족하며, 조금 더 많이 하면 압력을 느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게을러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페스 수련자 천(陳) 씨는 최근 명혜라디오의 중국법회 교류를 계속 듣고 있는데, 한 편도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중국 수련자들이 법에서 닦아낸 정념과 자비가 저를 깊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두 가지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대법은 반드시 수련할 것이다’입니다. 수련자는 남편에게 자주 구타와 욕설, 학대를 당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또 욕할 때 그녀는 어떻게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보고 남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물 좀 마셔요. 한참 동안 욕하느라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자신이 극도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아닌 남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기뻐했고 그때부터 다시는 그녀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善)이 이 고비를 해결한 것입니다.”

(명혜 대만기자 보도) 제22회 중국 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중국법회) 원고가 올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명혜망에 잇따라 발표됐으며, 총 91편의 중국 수련자 수련심득이 수록됐다. 내용은 각계 각층과 다양한 연령대의 수련자들을 포괄하며, 진실하고 중후한 수련 여정을 보여준다. 대만 수련자들은 대체로 읽은 후 마음 깊이 계발 받았으며, 세상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과 시련에 직면해 심성을 높일 수 있는 매번의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밝혔다.

‘사(私)를 닦아버리다’라는 글에서 수련자는 소그룹의 관리자를 맡아 이익 분배, 오해, 불평에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 억울함, 압박감,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거듭된 갈등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법을 외우고 안으로 찾으며 많은 억울함과 사심을 제거했다.

대법 수련 25년 차인 광(方) 씨는 말했다. “스스로에게 ‘만약 내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땠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업무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이 상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때때로 생활 속에서 상대방이 제게 잘해주면 저도 선하게 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매우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제게 냉담하거나 좋지 않게 대할 경우, 저는 앙금을 완전히 버리고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며 심지어 상대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매우 잘해주시고 항상 친구들을 열정적으로 도와주시지만,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을 때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실 때 보답을 받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돋는 것은 순수한 선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수련자의 글과 어머니의 답변에서 저는 오랫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사심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익이나 감정이 손상되면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나 우위를 얻으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업력을 소멸하고 심성을 승화시키는 큰 좋은 일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 신의 경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수련한 린(林) 씨는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진상을 알리다’를 읽은 후 말했다. “저는 늘 언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입을 떼기를 겁냈습니다. 글쓴이가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가 진상을 알려 시민들이 진상을 알고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하려는, 그런 타인을 위하는 정신과 용기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에게 거듭 ‘참아야(忍) 한다’, ‘고치자! 반드시 고치자! 기필코 고쳐야 한다!’라고 경계했고 심지어 수련자에게 부탁해 아주 큰 ‘참을 인(忍)’ 자를 몇 장 출력해 집안 곳곳에 걸어두고 수시로 자신에게 ‘참아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을 돌아보니 안일함, 질투심 등 좋지 않은 마음이 많은데 저는 늘 모르는 척하며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집착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 저도 성실하게 직면해 노력해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명혜 독일기자단 보도) 제22회 중국법회 문장 번역본이 잇따라 게재되면서 독일 수련자 실비아(Sylvia)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모든 글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물론 글을 쓴 수련자분이 제 마음을 직접 겨냥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모든 글에서 제 수련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실비아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글은 ‘한 가지 올바름이 백 가지 악을 제압할 수 있다’였다. 이 글은 한 여성 대법제자가 구금된 수련자를 돋는 과정에서 경찰의 갑작스러운 교란과 속임수로 납치돼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맞섰는지를 다뤘다.

“글을 쓴 수련자가 중국의 그처럼 거대한 압력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와의 격차를 보았어요.” 실비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지 파룬궁 행사에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인이 ‘시간 없다’며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이 제 상태와 관련 있다는 걸 알아요. 정념을 강화해야

비로소 더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진상을 듣게 될 거예요.

실비아는 20여 편의 중국법회 번역문을 통독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념의 중요성을 명확히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 수련자들이 그토록 위험하고 공포스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능동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견지해온 것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정념의 위력을 목격하게 했고 제 수련의 부족함을 보게 했죠. 솔직하게 공유해준 모든 중국 수련자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그들의 정진과 인내, 진실함과 흔들림 없는 마음에 경의를 표해요. 저는 정념을 확고히 하는 면에서 끊임없이 향상해 진상을 더 잘 알리고 싶어요. 저를 인내로 이끌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수련생 보도) 명혜망이 매년 개최하는 중국 대법제자 수련 심득교류회(법회)는 중국과 전 세계 대법제자들의 중요한 성회(盛會)이자, 전 세계 대법제자들에게 비학비수(比學比修, 배움과 수련을 서로 견줌)할 기회를 제공한다. 명혜망에 발표된 제22회 중국법회 체험문들은 모두 사부님과 대법의 위대함을 실증하고, 중국 수련생들이 엄혹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사람을 구하며, 사람에서 걸어 나와 신(神)을 향해 나아가는 제고의 과정을 서술했다. 이 글들은 한국 수련생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고, 각자의 격차와 부족함을 찾아 더욱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하도록 격려했다.

수련생 김 씨는 이번 중국법회 글을 여러 편 읽으며 여러 번 눈시울을 붉혔다. ‘사심을 돌파해 자비로 경찰을 삼퇴시키다’를 읽은 후 그는 말했다. “수련생의 평소 생활이 매우 검소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기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글쓴이가 보서(寶書, 대법서적)를 되찾으러 간 경험을 읽을 때 방관자인 저조차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

만 글쓴이 수련생은 너무나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의 마음이 이미 그 경지까지 승화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몸이 진정으로 법 속에 녹아있었기에 그토록 태연하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다. “사부님이 위대하시고 법이 위대하기에, 오직 이런 사부님과 이런 대법만이 이런 제자를 길러낼 수 있다고 감탄했다.”

법회 글 ‘수련에서 안으로 찾으니 험한 길이 탄탄대로로 변하다(上)’은 수련생 원 씨에게 큰 감동을 줬다. 글쓴이는 이렇게 썼다.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너는 기꺼이 고생을 감내할 수 있어?’ 저는 끝내 ‘기꺼이(甘願)’라는 글자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다 그쳐 물었고, 약 30분 동안 자신에게 물은 뒤에야 마침내 마음이 풀렸고, 억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원 씨는 말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련생의 교류문장을 읽은 뒤 제 수련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혼, 빚더미, 고단한 생활, 위험한 직장 등 겹겹의 시련 속에서 저는 제 쟁투심과 득실에 대한 집착을 보았습니다. 전남편의 오해와 대법에 대한 불경함에 직면해서도, 그것이 제가 반드시 닦아버려야 할 업력과 집착의 반영임을 점차 깨닫게 됐습니다.” “글을 다 읽은 후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세간의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할 수 있는가? 마음을 평온히 하고 고생을 낙으로 삼을 수 있는가? 빚을 갚으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끼는가?’ 지금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며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꽉 조이고 있던 끈적끈적하고 불투명한 물질이 사라졌고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명혜 유럽기자단 보도) 스웨덴의 파룬궁수련자 쥐(君) 씨는 수련한 지 거의 30년이 되는 노수련자로, 중국법회 원고를 읽으며 수련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정법(正法)시기 대법제자로서 법을 잘 배우고, 이성적으로 법을 인식하며, 관념을 깨고 사람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더욱 깊게 느꼈다. 그중 ‘정법수련을 명석하게 인식해 신(神)의 면모를 드러내자’라는 글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글에서 저자는 언급했다. “우리는 이 역사 대극의 주인공이며, 중생과는 구원과 피구원의 관계이지, 박해와 피박해의 관계가 아니다. 대법제자는 세상에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지 박해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쥐 씨는 말했다. “저자는 끊임없이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감성적인 인식에서 이성적인 인식으로 승화해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책임과 사명을 깨달았고, 관념을 전환했습니다. 자신의 실천을 통해 제자가 정념이 충분하고 일이 법에 부합할 때 사부님의 법신(法身)이 항상 보호하고 가지(加持)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신이 될 수 있으며, 사악한 박해는 본질적으로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쥔 씨는 또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다’, ‘대면해 진상을 알릴 때 공능을 사용한 몇 가지 사례’라는 두 글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 수련자들이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도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법을 잘 배웠고, 수련이 탄탄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 “실천이 증명하듯 대법제자가 법의 요구에 부합하고 이성적으로 법을 인식하며 명백하게 법에서 수련할 때, 법에서 닦아낸 지혜를 사용하고 공능(功能)과 신통을 운용해 조사정법(助師正法)하면, 반(反)박해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수련자의 정법수련 과정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법에서 온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고, 사부님의 자비와 대법의 초법성 및 위력을 구현했습니다.”

(명혜기자 캐나다 보도) 캐나다에서 28년 수련한 위안(袁) 씨는 중국법회 수련생의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의 길을 걷다’라는 교류문장을 읽고 감회가 매우 컸다. 그녀는 말했다. “사부님 고향의 대법제자는 법공부에 매진하고 정념정행을 확고히 하며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니 우리 대법제자의 주체이자 중견입니다.”

토론토 대법제자 량(梁) 씨는 ‘어디나 모두 수련 환경이다’라는 법회 교류에 대해 특히 감회가 깊었다.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구치소에서 나와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수련 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에 목표가 좀 있었는데, 바로 파출소에 가서 물건을 달라고 하고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구원을 기다리는 생명이니 이 과정도 수련의 역정입니다.” “중국 수련생에 비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30년 가까이 수련한 대법제자로서 이미 해외에 있으면서도 중국 대법제자와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아니니 사부님과 대법에 면목이 없음을 깊이 느낍니다.”

(명혜 북미기자 종합보도) 미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이 중국법회 글들을 읽고 얻은 체험을 공유했다. 몇몇 수련생들은 중국 수련자들의 글이 “순정(純淨)하고 깨끗하며, 꾸밈없이 소박하다”라고 언급하면서, 해외 환경에서의 자신의 수련을 대조해 보게 됐고, 더욱 “법의 위대함, 사부님의 위대함”, 그리고 “이런 수련 단체 속에 있을 수 있는 행운”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법회에 투고한 많은 중국 수련자들은 법률 공부에 대해 언

급했다. 일상에서 진상을 알릴 때나, 불법 박해를 당했을 때, 직장 상사의 난처한 처지, 친척·지인의 오해 등 상황 속에서도 법률 상식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악행을 드러내지 말라고 권했고,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을 마주할 때도 비굴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신을 변호하고 수련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편의 억울함 호소하며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다’라는 글 역시 많은 수련생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시간주 수련자 자(賈) 씨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수련자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의 인도하에 법을 실증하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련자의 정념정행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저도 앞으로 중국 대법제자들처럼 제 환경 속에서 착실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며, 제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수련자 회정(懷正)은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다’라는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법제자로서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 필요한 일반 사회의 기술과 지식을 깊이 익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님께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지식을 많이 배우라고 격려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항목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해, 대법제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을 더 잘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항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인의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제가 해야 할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미국 중부 지역 수련자 간(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다’ 글 속 수련자의 이야기에 큰 격려를

받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진상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어·영어로 진상을 알리는 데 느끼던 장벽을 반드시 돌파해서, 하루빨리 두 언어 모두로 막힘없이 진상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시간주의 수련자 쓽(宋) 씨는 이렇게 말했다.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다’에서 이 수련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얻기 전부터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했고, 이후 법률로 박해에 맞서는 과정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공안·검찰·법원·당위·정부기관 등 관련 부서에 널리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수련자와 항목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글의 마지막 체험 부분에서 정리한 내용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수련이 첫째이고, 과시할 것이 없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생사를 내려놓고 신을 향해 나아가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법 속에서 수련한 지 곧 30년이 됩니다. 사존에 대한 무
한한 존경과 감사, 대법에 대한 비할 데 없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제22회 중국 온라인 법회의 좋은 기회를 빌려, 제가
70세 가까이 되면서 겪은 시련 속에서도 미혹되지 않고, 생사를 내
려놓고, 자신을 수련하며 사람을 구하고, 신을 향해 나아가는 제고
과정을 사존께 보고드립니다. 사존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수련생
들과 함께 격려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
의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정말 업(業)이 겹겹이 쌓여 왔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
터 끊임없이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추
위 속에서 어머니의 솜바지 속에서 태어나 양수에 질식해 죽을 뻔
했습니다. 6~7개월에 디프테리아에 걸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8~9개월에 가축우리에 기어 들어가 소에게 밟혀 죽을 뻔했습니다.
세 살에 오빠가 놀 때 파놓은 깊고 좁은 흙구덩이에 머리부터 처박
혀 질식해 죽을 뻔했습니다. 같은 해에 오빠가 손에서 놓쳐버린 큰
도끼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5~6세에 십대 초반의 바보 사촌 언
니에게 이끌려 강물에 빠져 익사할 뻔했는데, 그때의 기침과 질식

의 고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7세에 승강장에서 밀려나 기차에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대법을 얻고 나서야 사존의 보호 덕분에 제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대법제자가 될 기회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련 후 사존께서 저의 신체와 사상을 정화해주시고, 도덕이 승화되어 목숨을 앗아갈 병이든 그렇지 않은 병이든 모두 나았습니다. 25년 간의 체력과 활력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수련은 얼마나 엄숙한 것입니까? 사람에서 신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수련할수록 편안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0세 가까이 되면서 피와 불 같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저의 신체는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시(赤施)’가 생겼는데, 이는 《황제내경》의 17가지 죽음 중 가장 흉악한 것으로, “열흘 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약 7kg의 체중이 빠졌습니다. 원발의 족근골이 골절됐고, 오른 손목뼈는 골절돼 반불구 상태가 됐습니다. 당뇨병의 모든 가상이 번갈아 나타났고 발이 두 번이나 썩었습니다. 시력, 청력, 체력, 미각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두 눈은 이미 3년 동안 맞은편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후각은 어린 시절에 상실됐고, 손과 발의 통각은 사라지고 마비, 냉기, 부종이 있었습니다. 늘 만성 변비가 있었습니다.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어 허리를 펼 수 없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자주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꿈치의 혼 땁지가 십 수 번, 20여 번 떨어져 나갔습니다. 간혹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신발을 신지 못하거나, 안면 마비 등의 뇌경색 가상도 있었습니다.

‘늙음, 병듦, 불구’가 닥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음의 관(關)을 넘기도 했습니다. 적시 외에도 당뇨병 등의 가상을 겪었고, 급성 심근경색도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현기증이 나고, 식

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또 격렬하게 기침하다가 구토하고, 오줌을 싸고, 질식하기도 했습니다. 8월 중순에 한 수련생이 법공부하러 와서 제가 2월에 발이 썩고, 격렬하게 토하고 설사했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법을 읽을 때 발성이 어려웠고, 몸에서 시체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악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제가 정념(正念)을 가졌기에 사존께서 저를 구해주세요.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심근경색, 격렬한 기침으로 인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없었기에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일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부님과 대법을 믿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전법륜)

저는 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수련하는 사람은 병이 없다.”(파룬따파의해-창춘(長春) 파룬따파(法輪大法) 보도원을 위한 설법) 저의 신체는 사존께서 이미 완전히 깨끗하게 청리(清理)해주셨기에, 저는 이 가상들을 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련생들에게 발정념(發正念)을 도와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과 대법이 계십니다.

저는 고통을 겪는 것은 흑색물질을 백색물질로, 덕(德)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수련 제고의 좋은 기회라고 인식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병의 가상들은 그에 상응하는 병과 달랐습니다. 열흘 안에 죽는다는 악성 종기인 적시는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일주일 만에 나았습니다. 당뇨병으로 발이 두 번 썩었을 때도 의사를 찾지 않았는데, 각각 4일과 10여 일 만에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앓았습

니다. 저의 안색은 분홍빛이고 희며, 피부는 곱고 윤택하며 탄력이 있고 주름이 없으며 화장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가볍고 깃털처럼 떠서 병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연공인들이 늙고 죽을 때까지도 마음을 병마 제거 및 건강 회복에서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으로 돌리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속인이라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합니다. 저의 편협한 이해에 따르면, 자신을 환자로 여겨 병원에 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수련생은 옆에 아홉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을 겪었을까요? 법 위에서 수련하고 미혹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마도 사존께서 저의 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도 저의 공(功), 공능, 생명체가 자라고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본체(本體)를 변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도 제가 구원한 사람들이 가져온 죄업을 소멸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배후의 생명들을 위해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덕이 커서 신체적으로 더 많이 감당하며 공이 자라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존께서 저의 심성이 제고되고 안정됐으며, 깨닫고 수련할 수 있다고 보시고 난관과 시련을 설정하여 제가 층차를 올리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역사적으로 ‘늙고 병들고 불구인 몸으로 대법을 얻어 고통스럽게 수련하겠다’는 서약을 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법을 배울 때 일심불란하지 못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아 징벌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고서(古籍)나 잡서를 읽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불러들여서, 이 집착 때문에 눈이 나빠져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본성적인 면이 법을 바로잡지 못하여, 사

악이 방임하는 틈을 타 끝없이 저를 박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구세력이 저의 난(難)을 이용하여 수련생들을 수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어떤 수련생은 제가 수련을 이루지 못하면 그들 누구도 수련을 이룰 수 없다고 한 번 이상 말했습니다). 아마도 구세력이 제가 수련하여 제거하지 못한 사람마음과 소멸시키지 못한 죄업을 이용하여 사악한 교란과 시험 및 박해를 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역사적으로 구세력과 계약을 맺어, 말세에 늙고 병들고 불구인 상태로 법을 얻어 정법(正法)을 교란하고 중생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것에 동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바로 부작용을 일으키도록 배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원인은 만 가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법 구원을 교란하는 것은 구세력입니다. 제자는 구세력을 위해 죄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사존께서는 제자를 위해 주재해주십시오.” 저는 사존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존의 제자로서, 제자의 모든 것은 사존께서 배치해주십시오. 제자는 오직 사존께서 배치해주신 수련의 길만을 걸을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배치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 제자가 역사적으로 구세력과 그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만약 제자가 바로 부작용을 일으키도록 배치된 것이라면, 사존께서 제자를 구원해주십시오. 제자는 몸이 산산조각 나고 형신전멸(形神全滅)되어도 그 약속과 배치를 원치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 사존을 따르고 대법에 동화하는 것만을 원합니다. 만약 제자의 정념이 강하지 않고 큰 착오가 없다면, 사악의 배치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다면, 정신(正神)께서는 정법에 사용되도록 배치된 제자를 소멸시켜주십시오.”

왜 이전에는 이런 난관이 없었을까요? 저는 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저의 심성이 높지 않고 불안정해서, 대법과

수련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이런 난관이 나타나면 제가 깨닫지 못하고 수련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제거해야 할 집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구원한 사람이 많아져서 감당하는 업력도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구세력이 제가 나이가 많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착을 겨냥하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사존의 배치가 자비롭고 질서 있고 절묘하며, 정말 제자를 위해 생각하고 계심을 체득하며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구세력은 질투하고 방자하여 틈을 타서 박해하는데, 정말로 우리를 훼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념으로 사악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7·20' 이후 개인 수련은 전면적으로 정법 수련으로 전환됐고, 사존께서는 제자에게 개인 수련의 난관을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체 변화의 반응도 세 가지 일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큰 난관은 구세력의 사악한 교란, 박해 및 시험입니다. 사악이 저를 교란할 수 있고, 저를 교란했다는 것은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줄곧 안으로 찾고 있으며 수련생들도 제가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많은 집착을 찾았습니다. 질투심, 쟁투심, 선량함과 인내심 부족, 말하는 어투가 좋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 체면을 중시하는 것,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보는 것, 입을 수련하지 않는 것, 급하게 표현하려는 것, 자신을 과시하고 실증하려는 것, 게으름, 동공(動功) 연마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의존심이 강한 것, 컴퓨터의 모든 조작을 수련생에게 의존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한 가지 특수한 색욕심도 있습니다. 욕망은 아니지만 법을 배우고 연공하는 중에도 불쑥 튀어나오는 것으로, 제가 이전에 알았던 성폭력 범죄 사건이나 소설의 성적인 묘사 등입니다. 가짜 자아(假我)는 또 다른 가지를 펼쳐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란은 제가 대법을 얻기 전에 7편의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짧은 소설을 지은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발정념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사존께 진정한 제가 원치 않는, 참된 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의 집착과 죄업을 씻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에서 올바르게 찾았고 바로잡았기에 죽음의 관도 사존께서 저를 도와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시력, 청력, 체력, 오른손 기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바르게 찾지 못했거나 올바르게 찾았더라도 법에서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빛은 한동안 시력을 겪어야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심성을 제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법 속에서 자신을 환자나 노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환자로 여기지 않지만 늘 자신을 노인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의 해이함을 스스로 용서합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일을 할 때도 모르게 끙끙거리립니다.

대법은 성명쌍수(性命雙修)이며, 늙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가상이며 구세력의 배치입니다. 저는 제가 노인임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끙끙거리는 것을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젊은 사람이 끙끙거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또 다른 예로, 난관 속에서 사존께 구하고, 법을 많이 배우고, 연

공을 많이 하며, 안으로 찾고, 발정념하며, 선해(善解)하고, 사악을 반제(反制)하며, 공능과 신통을 운용하는 등에서 기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해제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인가? 신체가 편안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인가?’ 저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고 양면 모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고해야 할 점입니다. 또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도 저는 저 자신을 원만시키려는 사사로운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수련인은 하나의 틀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며, 수련의 길은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표현이나 상태라도 그 배후의 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모범이 없고, 무임승차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스승으로 삼아, 법에서 깨닫고, 법에서 수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순조롭게 수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수많은 재난을 겪는다고 질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신도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난관이 끊이지 않는다고 대법을 의심하거나 사존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타락한 사람이 대법 속에서 수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존의 자비이며 대법의 위대함입니다. 수련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자신의 근기, 깨달음, 또는 인내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련은 늘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법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생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이다.’ 지금껏 수련하면서 저는 “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홍음-무존)의 의연하고 침착함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사를 담담하게 보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명을 지닌 대법제자로서 생명은 대법에 속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으며 구세력이 함부로 빼앗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사존의 배치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의 고비 앞에서 단지 목숨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저는 혼자 외롭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존의 법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손자 손녀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유감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아마도 수련생이 사악이 제 목숨을 앗아가려고 왔다고 말했던 그 며칠 동안일 것입니다. 한 젊은 수련생이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제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하면서 저의 의료보험 카드도 요구하며 언제든지 저를 병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 카드를 찾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이 없으며 의료 행위는 저의 수련을 방해할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저의 이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 당신이 저를 하룻밤 지켜보고, 원치 않는다면 다음 날 와서 저를 한번 보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그때 저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나중에 또 저는 제게 사존의 설법을 틀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제가 법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이며 발정념으로 제거하여 구세력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수명이 다 됐는지, 저의 수련 상태가 생명을 연장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가 세간법(世間法)을 수련하여 벗어났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구세력이 저와 농담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사존께서 배치하신 것이 틀림없이 가장 좋을 것이며 모든 것을 사존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저는 사명을 잊지 않고 세 가지 일을 줄곧 마음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배우고, 연공하고, 발정념하며, 사악한 공산당의 국경을 넘는 탄압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심득 체득을 쓰고, 수련생들이 심득 체득이나 각종 공모 글을 쓰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집은 단체 법공부 및 연공 장소로, 수련생들이 션원을 관람하도록 조직하고, 경문, 진상 자료, 명혜망 등의 시청각 파일을 전달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 명단을 처리합니다. 또 진상 지폐 항목에 참여하고, 대법 책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등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면 대면으로 진상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법리가 명백하면 마음이 밝고 활짝 열려서 사람이 즐겁습니다. 눈이 불편하여 넘어져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고, 힘줄을 다치고 뼈가 부러져도, 첫 반응은 웃는 것입니다. 몸에 부정확한 상태가 나타나도, 심지어 죽음을 마주해도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침착한데, 자신도 놀랄 정도입니다. 이것은 대법에서 오는 지혜와 힘입니다. 수련인이 속인 세상의 좋은 일, 예를 들어 선한 보응과 복수(福壽)를 만나든, 나쁜 일, 예를 들어 업보와 재난, 질병을 만나든 모두 좋은 일입니다. 우연한 것은 없으며 모두 자신이 갚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수련해야 하고, 제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만고의 기회와 인연을 소중히 여겨, 진수실수(眞修實修)하며,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사존께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사존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법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존께 감사드리며 머리 숙여 절을 올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스(슴十)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두려움, 쟁투심, 악의를 내려놓자 자비심이 나오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에 장쩌민을 고소한 후, 매년 중공 악당이 회의를 열기 전에 경찰은 ‘관례적인 일’처럼 우리집에 왔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소란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들도 진상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하며,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구원의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경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전환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찰에 대한 관념으로 표현되는 것은 모두 악의와 쟁투심이었다

1999년, 장쩌민이 손아귀에 쥔 권력을 이용해 중공 경찰을 협박하여 거리낌 없이 대법제자를 체포하고 박해했으므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찰에 대해 줄곧 대립적인 관념을 가졌는데, 지금 보니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경찰과 대법제자는 대립 관계가 아니며, 경찰도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사람들과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온 것은 2016년 여름 방학 어느 오후였는데, 촌장이 동네 파출소 소장 등 대략 6~7명을 데리고 우리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없었고, 집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딸만 있었

습니다. 딸은 상황을 보고 서둘러 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 딸을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나요?!” 딸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아직도 파룬궁을 수련하시나요? 만약 계속 수련하면 세뇌반으로 보내 가두고 몇 년 더 선고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모두 집행 기록 장치가 달려 있었고 초록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딸은 6~7명의 흉악한 사람들이 마당에 서 있는 이 광경에 약간 두려웠지만 그래도 대답했습니다. “포기는 불가능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딸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라고 물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고 동네 파출소 소장입니다.”

딸이 다시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그때 대비를 하지 않아서 한 명씩 각자의 이름과 직책을 모두 말했습니다. 딸은 그들의 호칭을 부르며 그들에게 파룬궁 수련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했지만 딸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요구했지만 딸은 역시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살 초반의 젊은 보조 경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화번호 하나는 줘야죠. 안 그러면 업무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딸은 정말 방법이 없다고 보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번호를 남기세요.” 그리고 나서 가짜 번호를 알려주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제가 돌아와 상황을 듣고 저녁에 촌장 집을 찾아가 왜 경찰을 우리집에 데려갔는지 물었습니다. 촌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다고만 하고 뭔 일인지는 말하지 않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일 때문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들은

착한 사람을 박해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협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진상 소책자를 촌장에게 남기면서, 그가 읽고 나서 더는 대법제자 박해에 협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소책자를 받고 게다가 “경찰이 당신 가족은 정말 교양이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 집 같았으면 욕먹고 쫓겨났거나 주인이 쇠삽을 들고 쫓아냈을 거라고 했어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경찰이 또 우리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식료품 시장에 갔었고 역시 딸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과 보조 경찰 한 명뿐이었습니다. 딸은 저번과 같이 당황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와 벽에 붙어 있는 진상 복(福) 자와 달력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은 온돌방에 앉자마자 제 딸에게 “천안문 분신자살 건은 어떻게 된 일이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딸은 그들에게 중공 악당이 분신자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해줬습니다. 약 10분 후 그의 전화벨이 울렸는데, 사실은 밖에 그와 연결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들어가서 10분 후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밖으로 부르기로 미리 상의했던 것입니다. 딸은 일어나 문을 막고 그들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물으러 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떻게 그들을 쉽게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10분을 더 이야기했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딸은 다시 그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고 결국 또 전화가 오자 그제야 떠났습니다.

제가 돌아와 듣고 나서 다시 촌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또 왔나요?” 그는 “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 드린 소책자는 다 보셨나요?”라고 묻자, 그는 “말도 마세요. 볼 틈도 없이 파출소에서 가져갔는데, 그들이 먼저 가져가서 보겠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겉으로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진상을 들으러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만나지 못하자 포기하지 않고 이틀 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들과 문 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진상을 들으러 온 것을 알았지만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평화롭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험악하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거만하게 “파출소 경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파출소 사람이 잘못 찾아왔군요. 저는 파출소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일도 없고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무 살 남짓한 보조 경찰 한 명이 다가와 “당신이 ○○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걸 왜 묻습니까? 맞으면 어떻다는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해서, 저는 “방 안으로 가지 마세요. 큰길에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큰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모두 구경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 휴대폰을 꺼내 줘요. 내가 그들을 녹화할게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이름이 뭐니까? 내가 당신 이름 적어 놓을게요”라고 묻자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주머니, 제 이름은 적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온 것을 보자 곧 매우 화가 나서 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러 왔어요? 좀 편하게 살게 놔둘 수 없습니까?!” 그들은 남편의 말을 듣자 불친절하게 굴며 즉시 건달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당신 집에 오는 것이 싫습니까? 제가 전화 한 통이면 경찰 100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말을 이어받아 말했습니다. “경찰을 왜 부릅니까? 능력 있다면 시진핑을 불러오세요. 그래야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는 곧

바로 기가 죽어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그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저를 왜 찾아요? 당신들 경찰복을 입고 경찰차를 몰고 왔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젊은 보조 경찰은 깜짝 놀라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주 머니,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저는 “왜 목소리를 낮춥니까? 저는 부도덕한 짓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알아도 두렵지 않아요. 갑시다. 여기서 말하지 말고 큰길에 가서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당신들이 도대체 뭐 하러 왔는지 모두 듣게 합시다”라고 말하며 그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급하게 저를 말렸지만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해서도 저는 여전히 큰 목소리로 일부러 길가의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저를 왜 찾습니까? 제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 보세요! 제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쏜살같이 차에 타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멈추세요. 당신들 젊은 나이에 장쩌민을 대신해서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무 인형처럼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자 그들은 차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제 말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제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장쩌민 따라 법을 어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장쩌민의 총알받이가 되지 마세요.” 그들 차가 출발하는 속도는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저는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소란을 피우러 왔는데, 와서도 아무 말도 못 하네요. 보세요, 나쁜 짓 하고도 사람들이 들을까 봐 두려워 도망갔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온종일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뻤고, 겸사겸사 이웃들의 의혹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분명 뒤에서 저를 비난하고 대법을 훼손할 것입니다. 저는 허영심을 버리고 경찰의 소행을 중생 앞에 폭로했고, 이웃들도 무슨 일인지 이해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긴장 때문에 경찰에게 진상을 알려주지 못한 나쁜 일을 오히려 좋은 일로 바꾼 셈입니다.

1년 지나 그들이 또 우리집에 왔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 정말 온갖 평계를 다 댔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스미싱 방지 앱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스미싱 방지 분홍색 홍보 전단을 들고 또 우리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때 자전거를 문 앞에 놓아뒀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막 들어오려는데 마침 딸이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들은 “아주머니 집에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딸은 미소 지으며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보조 경찰 두 명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 스미싱 방지 홍보 전단을 전해 드리러 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아, 전에 마을에서 이미 받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비스가 정말 잘 돼 있네요.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알려주시니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것은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저희가 아주머니께 직접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딸은 다시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아주머니 자전거죠? 아주머니 집에 계시죠? 저희가 아주머니와 몇 마디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라고 말하며 마당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딸은 그의 앞에 서서 여전히 확고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또 다른 일 있으십니까? 제가 대신 전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줄곧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나올 생각이었으나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듣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저녁 시장에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자 그 짧은 경찰 몇 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줄행랑을 쳐 30m쯤 달아난 후, 모두 멈춰서 저를 돌아보고는 웃으면서 가 버렸습니다.

2. 두려움, 쟁투심, 악의를 내려놓자 자비심이 나오다

그 후 몇 년 동안 해마다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노크도 없이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만 보면 바로 갔습니다. 저도 매우 화가 났고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들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찰 대부분은 연줄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정규 군경 교육을 받지 않아 아예 법을 모르고, 모르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특히 마을에서는 그들이 법률 상식에 대해 조금도 엄격하지 않고 하는 일이 소꿉놀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험악하게 그들에게 법률 상식을 알려주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유 재산 침해, 초상권 침해이며,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우리는 위법 행위에 협조할 수 없다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했고 다음에도 또 왔습니다.

전염병 기간에 그들이 또 왔는데 우리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딸이 다시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 세우고 큰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은 나쁜 사람 잡는 일을 담당하는데 왜 당신들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온종일 우리집에 와서 착한 사람을 소란스럽게 합니까? 제 휴대폰을 몇 년 전에 장터에서 도둑맞아 제가 신고했지만, 당신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찾아주지 못했고 도둑도 잡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해야 할 일에 시간을 쓰면 안 됩니까? 본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매일 쓸데없는 짓만 하나요. 대법제자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인데 당신들은 일부러 선량한 사람만 괴롭힙니다.” 그중의 한 경찰이 “작년에 우리가 사건 하나를 해결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1년에 하나 해결했군요. 당신들 일 처리 효율이 정말 높네요. 당신들이 대법제자를 소란스럽게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사건 해결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며 딸을 말렸습니다. 저는 이 경찰들에게 눈이 빨간 돌사자와 총구를 1cm 높인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그들은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오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계속 재촉해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다 먹고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저의 태도가 바뀌자 그들의 말투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이 다시 올 때는 조용히 대문으로 들어와 마당에서 작은 목소리로 “아주머니,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실은 순진한 사람들이고 사악하지 않으며, 경찰은 단지 그들의 직업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을 향한 저의 차가운 마음도 녹았습니다.

저는 수련생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것은 소용없으며, 우리가 이겨서 그들을 쫓아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도

제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태도를 바꾸고 두려움과 쟁투심, 악의를 없애고 그들을 쫓아내려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명령받고 왔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총의 외적 원인일 뿐입니다. 경찰이 문으로 들어와 진상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사부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급 경찰이 어떻게 진상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대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만, 파룬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경찰 두 명이 다시 우리집에 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보세요. 기록 장치가 꺼져 있어요.” 그들은 이제 수법을 바꿔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한 명은 말을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화를 담당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녹화할 템면 녹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마주치면 그들은 녹화를 시작했고 임무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뀌어야 하며 그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 안으로 청하여 손님 대접하듯이 차를 내오고 물을 따르고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뜻밖의 환대를 받고 어색해했습니다. 얹지로 앉아 저와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기본 진상을 그들에게 한 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장쩌민을 고소한 일로 인해 직장에서 경제적인 박해를 받은 일도 말해줬으며, 이전의 좋지 않았던 태도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듣고 나서 저에게 “아주머니, 직장에 가서 그 돈 찾아오세

요. 어떻게든 그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렸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들은 당장 가야만 했습니다. 자주 오던 그 젊은 보조 경찰은 이미 정식 경찰로 승진했는데, 떠나기 전에 제가 따라 줬던 차를 일부러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예의를 아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작은 세부사항을 통해 저는 마음 속에 선념(善念)이 생겼습니다. 그들 모두 제 자녀보다 어린데, 제가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올해 6월에 그들이 다시 왔으며, 그때는 오후 6시쯤이었고 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과 마당에서 이야기하면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당신은 수련합니까?”라고 묻자 남편은 “저는 수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이 사회가 너무 암담해서 저는 입당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제 남편이 “이 말은 당신들 지도부가 듣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그들이 온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또 왔나요?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들은 “아니에요, 아주머니, 마당에서 잠깐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들에게 현재의 정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면서, 이치를 깨닫고 몸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전단 배포하시더라도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전단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어떻게 재난을 넘기고 어떻게 평안을 지킬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람을 구하는 비방입니다. 지금 다른 경찰들은 파룬궁을 신고하면 출동도 하지 않고 모두 대법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짓을 하지 마세요. 자손 대대로 복덕을 쌓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듣자마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당신은 ○○ 씨의 어머니(대법제자)를 아세

요? 전단을 배포했는데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저는 “신고한 그 사람은 너무 부도덕합니다. 진상을 모르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제자를 괴롭히지 않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요. 당신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자주 암송하여 어려움을 만나도 상서로운 일이 생기고 평안을 지키도록 하세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 암송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효과 있습니다.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공산당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그들이 녹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진상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었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9월에 중공 악당이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경찰이 일찍이 왔을 것입니다. 저는 에포크타임스와 NTD TV의 뉴스 보도와 대법 진상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렸는데, 결국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3. 구체적인 문제를 벗어나 본질을 봐야 일이 명확해진다

두려움은 대개 무지에서 옵니다. 우리는 현상을 통해 일의 본질을 봐야 하고, 이 일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실수를 줄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적은 노력으로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몇 년간 ‘두려움’에 조종당했던 것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전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면 선과 자비, 그리고 서약을 이행해야 하는 사명감도

저절로 솟아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이성이 돌아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인연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경찰과 같은 직업을 가진 생명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선을 베풀고,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대법제자의 선량함을 진정으로 체득하고 진상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법제자가 박해에 반대하고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 고리입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표면적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람을 구해야 하므로 경찰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이 되는 것은 단지 그의 직업일 뿐이며, 그 제복 아래의 생명도 진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주변 수련생 중에는 이미 경찰서에 당당하게 가서 진상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경찰들도 대법제자의 선의를 깨달았습니다. 이상은 제가 이 기간 겪은 경험과 얇은 인식이며,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이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소업 중에 일사일념을 안으로 찾다

—사부님의 요구대로 해야 구세력의 박해를 타파할 수 있다—

글/ 중국 허베이 대법제자 정련(淨蓮)

[명혜망] 8월 초, A 수련생이 우리집에 와서 한 가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4~5월에 그녀와 남편이 고향에서 집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70세인 그녀는 책상을 나르고 침대를 드는 일 등에서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았고, 심지어 밥 먹고 잠을 잘 때도 매일 어떻게 일을 배치할지를 계속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튼을 설치하러 온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침대를 딛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A 집 침대는 창턱과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실수할까 봐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 사람 뒤에서 혹시나 하고 지켜주었습니다.

A는 제게 “그 사람이 실수라도 하면 반드시 그를 불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수련생에게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A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나요?”라고 물었습니다. A는 말했습니다.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데 방해될까 봐 일이 끝난 뒤에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끝내고 물건을 챙기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기에 그럼 ‘복도에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A는 복도에서 남편이 일하는 것을 보았고, 남편이 반대할까 봐 또 주저하게 돼 결국 진상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커튼 설치 기사가 떠난 뒤 A는 아쉬운 마음으로 방 안으로 돌아왔고 좀 실망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A는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고,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A는 제게 “그때의 그 고통은 당신이 설날 때 허리가 아팠던 증상과 똑같았어요. 꼬박 28일 만에야 나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일을 통해 당신이 그때 했던 말, 즉 ‘대법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법을 실증하지 않아서 초래된 불필요한 번거로움’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 나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인정하지 않았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일은 올해 설 연휴 이튿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외지에서 장사하다가 설을 맞아 집에 돌아온 수련생에게 플레이어를 전해주러 갔습니다. 그 안에는 음성판 《명혜주간》과 수련교류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아들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다른 수련생이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갔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부부와 전화 연락이 되는 다른 수련생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는 웅얼거리기만 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을 연달아 걸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나 ‘됐어, 안 가. 당신들을 위해서인데도 이렇다니. 낯선 번호라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텐데? 더구나 내가 누군지 이미 말했는데도 그런 반응이라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반쯤 허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 난방기에 등을 기대고 법공부를 했습니다. 20페이지를 읽었을 때는 허리가 아파 앓아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은 남편이 침대 옆 의자에 갖다주어서 엎드린 채로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엎드려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안 되고, 심지어 숨을 들이쉬거나 기침만 해도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업력이 큰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설법을 듣고 싶었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세로 듣더라도 사부님께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심 제거》, 《안일한 마음 제거》 음성 교류 문장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념을 발해 자신의 공간장을 청리하고, 자신의 육신을 박해하는 모든 사악한 난귀와 공산사령을 제거했습니다. 사상에서도 구세력의 모든 사악한 안배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대법제자는 오직 사부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외의 안배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혀점이 있더라도 법 속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구세력이 나를 망치려는구나. 도대체 어떤 바르지 못한 마음이 구세력이 틈을 타 박해를 불러오게 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법에서 구세력이 모든 대법제자에게 일련의 사악한 안배를 해 두었고, 언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까지 매우 세밀하게 안배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제자는 오직 법의 요구대로 해야만, 다시 말해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걸어야만 구세력의 사악한 안배를 부정하고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안으로 찾기 시작했고 최근의 일사일념에서 언행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1. 불순한 마음이 불러온 문제

음력 12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공부 팀에서 수련생들

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며 외지에서 장사하는 어느 수련생 부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법공부 팀의 한 수련생에게 몇만 위안을 빌리고도 갚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돈을 빌려준 수련생은 병업 고비를 넘기지 못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이것이 ‘돈을 갚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중 한 수련생은 외지의 그 수련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렸고, 그로 인해 또다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시 모두가 사람의 마음(人心), 사람의 생각(人念), 사람의 정(人情)을 갖고 문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저는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혹 속에서 수련하는데 그 안의 인연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안으로 찾아 자신을 수련해 이 일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겨냥한 것인지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마음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생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었지, 정체 제고를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말하는 어조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심이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우월하게 위에 있다는 과시심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질투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수련생에게 플레이어를 전해주려던 마음도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않지만 그들이 《명혜주간》을 들으면 사부님의 정법 노정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들은 저와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여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당문화(黨文化)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법에서는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을 때 제3자가 보아도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신성한 법공부 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말입니다.

제 공간장이 이렇게 불순하니 전화가 연결돼도 상대가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불만 또한 원망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구세력은 이런 빌미를 잡아 박해를 가한 것이고, 저는 이것으로 사부님께 폐를 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대법의 은혜를 받고도 법을 실증하지 않아 생긴 불필요한 번거로움

저는 올해 이미 칠십을 넘겼습니다. 설날 첫날, 저는 남편과 함께 고향에 가서 세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는 관습이 있어, 본가에서는 설날 아침에 모두 어른들 집에 가서 세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縣) 소재지에 살고 있는데, 시댁 고향 마을까지는 7~8km 거리입니다. 비록 시부모님은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집안 어른들 집이 몇 곳 있어서, 3년간의 방역 봉쇄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안이 사는 곳은 매우 넓게 퍼져 있어서 정말로 마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어져 있고, 최근에는 새 주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세배하는 과정은 전부 걸어서 다니는데,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때는 서너 명씩, 다섯 명씩 나오다가 나중에는 큰 무리가 돼 거리에서 걷습니다. 다른 집안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대략 아침 8시부터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모두 돌 수 있습니다.

동쪽 집, 서쪽 집을 오가며 세배를 다니면 어느 집이든 땅콩, 해바라기씨, 과일, 차를 내어 대접하는데 무척 떠들썩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피곤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는 제가 나 이가 많은 편이지만 항렬은 낫습니다. 저보다 10살, 20살이나 어린 사람이 오히려 어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60세가 되면 더는 나와서 세배하지 않고, 남자들과 후배들이 대신 나가서 세배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제자입니다. 조사정법(助師正法)의 사명이 있으므로 매년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어른들은 그들과 같이 다니지 말고 제 남편과 아들만 가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외지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몸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모시느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법 진상을 알려 그들이 구원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수님,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파룬궁을 연공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어떤 후배나 새 식구는 작은 목소리로 “나라에서 연공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었어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대법은 제게 건강한 몸을 주었고, 좋은 마음가짐을 주었고, 갈등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진선인(眞·善·忍)’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요! ‘천안문 분신자살’은 듣지 마요, 그건 가짜예요! 사람이 누가 돈을 얼마 받았다고 스스로 불을 질러 죽겠어요? 당신도 선(善)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걸어가는 길이 더욱 넓어지길 바랍니다!” 때때로 저는 진상 USB를 몇 개 가지고 있다가 외지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나 대학생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와 인사할 때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떠나며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삼퇴(三退, 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로 평안을 지키는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많은 집이 벽에 마오쩌둥 수괴의 초상화를 붙여 놓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달그믐에 조상님을 맞이했다가 며칠 후 다시 보내야 하잖아요. 마오 수괴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저승의 것이에요. 우리 양택(陽宅)에는 음적인 것을 걸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좋아요, 시간 내서 빼어내겠습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 삼촌 한 분이 벽에 중공 악당 10대 원수가 말을 타고 있는 초상화를 붙여 놓았는데, 저는 문득 몇 년 전 여기 한 노년 여수련생이 들려준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누군가 말 타고 달리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수련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수련생이 그녀 집에 와 보고, “벽에 붙인 저건 모두 악당의 죽은 귀신들이에요. 밤이 되면 나오는 건데 당신이 없애지 않았으니 방해를 안 받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노년 수련생은 즉시 악당 10대 원수의 초상화를 빼어내 불태웠고, 그 후로 말 달리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를 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웃긴 이야기로 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 그 집에 가보니 그 그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해야 할 말은 다 했으니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

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새해가 다가오는 며칠 동안 청소도 하고 창고 정리도 하느라 조금 피곤해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 션원(神韻)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니 이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대법제자에게 이 정도 피곤이 무슨 대수입니까?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고 진상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상 USB 몇 개를 챙겨 남편, 아들과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부님의 가호하에 저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우리 친척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몸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그렇죠, 28년 동안 약 한 알도 먹지 않았고 주사도 맞지 않았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룬따파의 덕분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두 살 많은 숙모가 다리가 아프고 걷기 힘들다고 했을 때도 그녀에게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읽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그들에게 진상을 전하고 삼퇴를 하도록 도와주었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칭화(清華)대학 여학생 한 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녀 가족은 베이징에 살고 있었고 이번 설날에 할머니 댁에 돌아와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친척은 아니지만 그녀 할머니와는 매우 친숙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녀 부모님과 남방에서 일하는 삼촌, 숙모에게 진상 메모리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집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니 머리가 마치 억제된 것처럼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생각하기도 전에 또 손님들이 들어왔고 우리는 손님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오른쪽 발뒤꿈치가 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냥 “계단이 왜 이렇게 가파르지?”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진상을 하나도 알리지 못했고 진상 메모리도 하나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애써 마련해주신 몸과 마음 상태를 저는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사부님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안으로 찾아보니 고향에 가고 싶지 않고 쉬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게으르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마음 아닙니까? 진상을 전해 중생을 구하려 하지 않고, 대법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대법의 아름다움을 실증하지 않았으니 구세력이 당신의 생각을 억제하거나 교란을 만들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3. 정을 가볍게 보아야 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비가 생긴다

하룻밤의 정사(正邪) 간의 대전(大戰)을 거친 후, 사부님의 가지(加持) 속에서 제 사상은 이미 안정됐다고 느꼈습니다. 초사흘 아침 식사 후에는 허리가 아프지 않아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꼬리뼈와 오른쪽 다리는 통증이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 안쪽에 힘줄이 하나 팽팽하게 당겨진 느낌이라 쭉 펼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른 발은 부어 있었고, 걸을 수도, 쭈그릴 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 조카딸이 와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은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상태일 뿐이고 내가 마음을 바로잡으면 자연히 좋아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조카가 말하기를 “이건 정말 병이 아니에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주사나 약도 필요 없어요. 제가 뼈 맞추는 분을 모셔와서 바로 잡아드

리면 신경을 안 누르게 돼 금방 좋아져요. 괜히 고생 안 해도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가 와서 상황을 보더니, 이는 나은 게 아니고 병이 아래로 내려가서 신경을 압박한 거니까 치료 안 하면 정말 마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사례를 몇 가지 말하면서 바로 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고마워, 같은 가족이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지. 그동안 너도 대법이 초범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주사나 수액 맞는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수련을 선택할게. 연공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돌아간 뒤 남편이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고 애원도 하며 “당신이 마비라도 되면 이 집은 어떻게 하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 말아요. 사부님께서 돌봐주시니 아무 일도 없어요. 게다가 병원에 가면 더 번거롭잖아요. 돈도 써야 하고, 당신도 계속 따라다녀야 하고, 집안일은 하나도 못하게 돼요. 손녀가 하교해도 당신이 밥도 못 해주죠. 나는 그냥 이를 누워 있었잖아요, 당신은 아무 일도 지장 없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와 같은 지역에서 살기에 시간이 좀 지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대법을 먹칠하는 일이 아닙니까? 중생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 또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부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플레이어에서 사부님의 법이 우렁차게 울려서 저를 깨웠습니다. “당신이 괴로울 때일수록 물극필반(物極必反)임을

설명하는데, 당신의 온몸을 정화(淨化)해야 하며, 반드시 전부 정화해야 한다.”(전법륜) 저는 무의식적으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저는 결코 정법을 파괴하는 마(魔)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공하겠습니다!” 이불을 확 젖히고 일어나 바로 5장 공법을 한 번에 다 했습니다. 아무 장애도 없었고 아무 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사부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정월 초닷새, 오전에 저는 시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걷는 데 다리와 발이 아직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했지만 천천히 걸으면 남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제 행동으로 대법의 초범성을 실증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웃 한 사람이 시누이 집에 와 있었고 저를 보고 놀라며 “다 나았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나았어요”라고 말했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았어요?”라고 묻기에 “그냥 연공하고 법공부를 하니까 나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 계단을 쓸기도 하고, 밖의 수돗가에서 걸레를 빨기도 했습니다. 이웃에게 제가 정말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략 닷새나 엿새 정도 지나자 걷는 데 다리가 아프지 않았고, 발의 부기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번 일은 제게 너무 깊은 교훈이 됐습니다. 법공부를 많이 해야만 평소에도 법으로 자신의 일사일념, 일언일행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대법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대법의 아름다움을 실증하고 세간에서 조사정법(助師正法)을 해야 합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진상을 알리는 지혜는 법에서 온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제22회 명혜망 중국 대법제자 법회 투고에 즈음해, 먼저 저는 사부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표하려 합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련생들의 사심 없는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제 수련 중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정법을 찾다

어릴 적 저는 아주 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께 나가서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잊었거나 엄마를 잊어버린 게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주위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을 쟁취하려 하지만 그 모습이 속되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예와 이익이 있은들 또 어쩌겠습니까? 제 인생은 인연에 맡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성적은 늘 좋았고 그때는 꽤 즐겁게 놀았습니다. 단지 가끔 어른이나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고통스럽고 광적인 행위와 가장 악독한 언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면 어때서?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저는 어려서부터 노인들이 들려주는 고대 수련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신의 선견지명, 대지대혜(大智大慧), 전능, 신통광대, 대자대비, 아름다운 신의 세계,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제도하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과 신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특히 그 시절은 모든 봉건 미신을 반대하던 때라 신불(神佛)을 공경하는 것은 소수 사람만이 몰래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개혁개방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서 향을 피울 수 있었지만 모두 재물이나 자식을 구하는 것이었고, 세상은 온통 색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람들의 도덕은 급속히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부식되어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전통적인 관념이 계속 저를 단속해 분에 넘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가 2천 년을 넘지 못한다는 설을 퍼뜨리며 인류에게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각종 기공(氣功) 수련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람이 연공해서 기(氣)로 변하면 재난이 저와 무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늘 제가 찾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1999년 봄 어느 날, 기공을 하던 어머니가 제게 이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으로 바꿨다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각종 문파에 대해 좀 안다고 생각했고, 어느 문파도 감히 크다고 칭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경전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수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주·신·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사람과 신이 그렇게 가깝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많은 천기(天機)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주 대법이었습니다. 제 인생관이 변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하려면 파룬궁을 수련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악당(공산당)은 청원하는 파룬궁수련생들을 납치하기 시작했고, TV, 신문, 각종 선전 도구를 이용해 파룬궁을 모함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금을 가려내려는 것이며 반드시 입문해 수련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장 공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연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복부 팽만, 급성 장위염, 부비강염(축농증), 두통, 잦은 감기 등 모든 좋지 않은 증상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무엇이든 먹을 수 있었고 잠도 잘 잤으며 병 없이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파룬궁은 정말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신기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이 나타난 후 중공 악당의 파룬궁 탄압은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수련을 그만두셨고 동시에 가족들도 제게 수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수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사상이 예전으로 돌아가 더러운 사상을 마주할 때의 압박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대법에서 저는 수련하면 교란을 겪게 되는데, 한 가지 표현 형식이 바로 더러운 사상이 튀어나오는 것이며, 제가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사부님께서 제거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련이 진짜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에, 단 하루만 포기하고 다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야 사상이 비교적 맑고 깨끗해졌음을 느낍니다. 나중에 수련생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저는 천안문 분신자살이 중공(중국공산당)이 연출한 사기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부님의 새로운 설법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며, 법을 실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대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있으면 미래가 없으므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지혜는 법에서 온다

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사람에게 진상을 알릴 때가 기억나는데, 말이 입가에 맴돌기만 하고 두세 번이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자신을 다그쳐 기어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서야 한 젊은이에게 파룬궁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신기한 효과가 있고 천안문 분신자살은 모함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연에 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무엇이 인연이냐고 물어와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모를 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인연은 마치 노래 가사처럼, 인연이 있으면 천 리 밖에서도 와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도 알지 못하며, 천 년을 수련해야 같은 배를 탄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놀랐고, 그때부터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습니다. 때로는 질문에 막혀 대답이 이상적이지 않을 때면 어떻게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종종 당일 저녁에 답이 떠올랐습니다. 서서히 제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순조로워졌고, 사람을 만나면 세 마디 말에 자연스럽게 화제를 파룬궁으로 이끌었으며, 모든 사물이 진선인(眞·善·忍)의 법리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수련생이 한 은퇴한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악당이 그에게 연금을 주니 악당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진상을 알릴 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산 악당은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우리의 세금과 창조한 가치로 그것을 먹여 살리고 있

고, 이 퇴직금이나 연금은 우리가 이전에 창조한 가치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사람은 “그때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 대답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 A의 아내가 삼륜차를 운전하다가 치여 사망했는데, 가해 운전기사가 A에게 20여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 후 ‘돈을 주는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여만 위안을 받았다고 A가 아내를 죽인 기사가 좋다고 말할까요? 조직폭력배가 돈을 주면 누가 감히 받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돈은 우리가 창조한 가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그들이 탐오했습니다. 우리가 악당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거꾸로 악당이 돈을 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렇게 말하니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며, 대면해서 말한 후 진상 자료를 한 부 주니 효과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가족이 진상을 알도록 노력하다

처음에 부모님은 모두 제가 연공하는 것에 동의하셨지만, 악당이 천지를 뒤덮을 기세로 미친 듯이 탄압을 시작하자 부모님은 두려워하셨고, 어머니는 수련을 그만두셨으며 제 온 가족이 제 수련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시시각각 저를 감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또 저를 보러 오신 것을 알고 발정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네가 또 나에게 공(功)을 쓰는구나”라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나가셨고, 그 후로는 단지 저에게 수련하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진상을 알려드려도 듣지 않으시더니 몇 년 후 뇌졸중에

걸리셨는데도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80세 때 아버지는 또다시 뇌졸중이 왔는데, 이번에는 덜컥 겁을 먹으셨습니다. 병원에서 간호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는데, 아버지는 나쁜 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법 진상 표어까지 찢으셨습니다. 파룬따파는 불법(佛法)이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일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대법이 가장 바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주 외우시면 복을 받아 지팡이를 던져버리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많은 사실을 말씀드리자 마침내 아버지는 납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방 안에서 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련해보신 적이 있어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아셨고, 부모님은 모두 90여 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큰 매형은 제가 몇 차례 진상을 알려준 덕분에 다른 수련생에게 부탁해 삼퇴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드물었지만 그는 퇴원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대략 두 달 후, 작은 매형이 혼수상태에 빠져 입원했는데 혼수상태에서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작은 매형은 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입원한 방향을 향해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몇 번 외우며 사부님께 그를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매형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는데, 제가 큰 매형에게 아직 이 일을 다 말하지 않았을 때, 큰 매형은 얼굴이 굳어져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디 가나 세 마디면 본업(파룬궁 진상)으로 돌아오는데 나는 그게

싫으네.” 저는 싫으면 말하지 않겠으니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마 TV를 보거나 다른 일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누군가 제게 작은 매형이 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큰 매형이 입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확실히 큰 매형이었고, 제가 그를 보러 갔을 때 ‘파룬따파하오’를 외우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외우지 않았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두 딸은 어려서부터 제가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대법 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 책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비록 큰딸은 이혼했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은딸이 대학에 가기 이를 전 밤, 저는 이를 연속 꿈에서 작은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딸이 전화해 대학에 가겠다고 하기에 저는 가지 말라고, 꿈에 너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작은딸은 말을 잘 듣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작은딸은 다른 교육 기관에 들어갔는데, 대입시험 성적이 나오자 그 아이의 전공 성적은 첫 번째 대학의 최고 점수보다 20점이나 높았고 4년제 대학에 들어갔으며 지금은 대학원생입니다.

우리를 따라 사는 어린 외손자가 1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게 “세상에 신은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에게 ‘파룬따파하오’를 외우게 했고, 사부님을 믿고 신이 계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경(기운 목)과 건초염을 앓았는데 의사들은 모두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간 의사가 다 고쳐주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반 학생 전체가 붉은 스카프를 매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는데, 외손자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마귀가 들까 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부님께 청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발정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돌아와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반에서 자기만 사진을 안 찍었는데, 선생님이 그가 걸음걸이가 삐딱하다며 찍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 왜 삐딱하게 걸었냐고 묻자, 아이는 자기는 삐딱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신이 없다고 했지, 이번에는 믿겠니? 우리가 신을 볼 수는 없지만, 네가 사부님께 청하자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께서는 정말 존재하신단다.” 외손자는 정말로 믿었고 학교에서 준 붉은 스카프를 집에 오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고 복을 받은 예가 아주 많지만, 가족의 일이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세계는 정말로 진선인(眞·善·忍)이 필요하며,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아야만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망심과 쟁투심이 초래한 심각한 교훈

2018년 이전까지 저는 세 가지 일을 순조롭게 하고 있었고, 위험했지만 큰 사고는 없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모두 사부님께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중공 악당의 사악함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깡패보다 더한 깡패 정당이고 나쁜 짓은 다 하며, 억울한 조작 사건은 3천 년 역사를 능가하고 탐오와 부패도 3천 년을 능가하며, 심지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까지 산 채로 적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심신은 깊은 원망심으로 가득 찼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상을 알리는 과정을 들은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련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악당이 미웠고 수련 성취하고 못 하고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람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저는 공원에서 도(道)를 믿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료를 받고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네 파룬궁은 이름을 고쳐야 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대략 “소도(小道)가 어찌 대도(大道)의 수행을 지시합니까”라고 말했고, 그는 듣더니 자료를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광장에서 신분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받더니 방금 해외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은 인권이 좋지 않냐고 하자 그는 뭐가 좋냐며, 안전한 느낌이 없고 매년 총기 살인 사건이 몇 건씩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은 매년 식칼로 무차별 살인하는 사건이 몇 건씩 일어나는데, 중국 국민에게 총이 있다면 탐관오리들을 다 콧 죽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즉시 나빠지더니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제 직감으로는 이 두 사람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두 번 다 제가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내뱉은 것 같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밀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저녁, 저는 7명에게 탈퇴를 권하고 집에 가려다가 납치당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이번에는 왜 저를 상관하지 않으시는지 원망했습니다. 저는 수련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지문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당시 나가서 성명서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던 10일 동안, 저는 원망심이 화를 불렀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서 6명에게 삼퇴를 시켜주었지만 어디가 부족해서 법의 위엄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제 주변 수련

생이 파출소로 납치됐는데, 그녀는 소장이 때리려 하는 것을 보고 주먹이 그에게 되돌아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먹이 날아올 때 수련생이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소장의 주먹은 벽을 쳤고 소장은 아파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련생은 박해하려는 것을 보자 “파룬따파하오”라고 크게 외쳤고, 외치는 동시에 수련생은 자신이 순식간에 공중에 떠올라 비할 바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잡고 있던 짚은이 세 명이 두세 걸음 뒤로 내동댕이쳐졌고, 그들은 “이 사람은 공(功)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수련생을 외지 구치소로 보내 사진을 찍으려 할 때, 수련생은 위대한 형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키 큰 경찰 두 명이 수련생의 양팔을 잡고 준비됐으니 찍으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이를 보고 “파룬따파하오”라고 고함쳤고, 수련생은 또 몸이 공중에 뜨는 것을 느꼈으며 덩치 큰 짚은이 둘을 멀리 내동댕이쳤습니다. 구치소 사람들은 이를 보고 돌아가라며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수련생을 만난 후 수련생은 저에게 전체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고, 자신이 안으로 찾아보니 저를 구하고 싶어 했고 파출소 직원에게 진상을 알리려는 마음이 있어서 박해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란 말인가? 나는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당신 자신이 쟁투심이 좀 있고 안전에 주의하지 않아서 조성된 것인데.’

제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생각해보니, 그녀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저는 수련생과의 격차, 법과의 격차, 사람과 신 사이의 격차를 찾아냈습니다. 저의 쟁투심, 원망심은 이미 무서울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했으면서도 속인만 못했고

대가를 치르고서야 찾아냈습니다. 사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자는 영원히 사부님께 빚을 졌습니다. 식물이 햇빛과 비, 이슬의 자양분이 있어야 자랄 수 있듯이, 제자들은 사부님의 법광(法光)에 동화되어야만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좋지 않은 마음을 닦아 없애고 세 가지 일을 잘하겠습니다.

법 암기에 의지해 집착을 내려놓자 새로운 경지가 열리다

고대 수도인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수도인은 선견지명이 있어 미리 일을 잘 처리해 놓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말은 아주 좋습니다. 현재 대법제자도 사부님의 인도하에 마땅히 미리 일을 잘 해놓아야 하며, 진상을 명백히 알리어 삼퇴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이해하든 못 하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대법제자가 이 일을 잘하려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록 장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직감으로는 시내에 있는 유일한 대출남은 집을 팔면 생활이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수련생)와 상의하자 아내는 “대출금은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이 집 한 채를 팔면 대법에 먹칠하는 거예요. 안 팔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아내의 신분증으로 대출받아 P2P 플랫폼에 투자했는데, 플랫폼이 망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온종일 전화해서 아내와 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우리에게는 저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집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아내와 딸은 온종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집을 파

는 게 좋겠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비록 정든 집을 떠나기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나중에 좋아질지 누가 알겠어.”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고대 수도인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는 책에 아주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몰려 가족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제 마음도 좀 무거운 느낌이 들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이튿날 제 사상에서 이 일이 계속 강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억눌러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법 암기를 하자, 저는 《홍음 4》 중의 ‘세상에 온 것은 이 한번을 위하여’를 외웠습니다. 두 번 외우고 나자 순식간에 심신에서 한 겹의 물질이 제거되는 것을 느꼈고, 집 파는 일을 더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며 더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되어 빛 없이 온몸이 가벼워졌고 법의 힘을 느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포악한 기운이 특별히 무거워 누구도 방법이 없고 정부도 골치 아파합니다. 만약 누구나 대법을 배우고 진선인에 따라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는 자연히 극단적인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대법제자 중에 탕자가 개과천선하고, 덕으로 원한을 갚으며, 남을 포용할 수 있는 큰 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고, 빚을 다 갚고도 일부 돈이 남아 우리는 또 투자를 좀 해서 오늘까지 이전에 잃었던 돈이 모두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와 아내는 편한 일만 찾았고 우리는 늘 대법 일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안배는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만물에는 모두 영이 있다

만물에 영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해 초저녁, 우리 온 가족이 DVD 플레이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션원(神韻) 공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 창문 유리를 탁탁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창문을 약 15cm 너비도 안 되게 막 열자마자 큰 잠자리 한 마리가 맹렬히 날아 들어오더니 DVD 플레이어 맞은편 창문에 앉아 션원을 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기 전에 잠자리가 방안을 어지럽게 날아다닐까 봐 창문을 열자마자 큰 잠자리는 날아갔습니다. 저는 잠자리가 우리집에 오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은 션원을 보러 온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션원을 방영할 때 왔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잠자리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대법제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해도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데, 잠자리는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보러 왔으니 정말 영성이 있습니다.

5년 전 가을, 제가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실 때 할 일이 없어 방안 문가에 앉아 직접 만든 통소로 ‘득도(得度)’ 곡을 불었는데, 아름다운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밖의 귀뚜라미들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속으로 ‘귀뚜라미들아, 너희들도 대법의 복음을 들어보렴’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불 때 어디선가 귀뚜라미 한 마리가 갑자기 30cm 넘게 튀어 올라 불고 있는 통소 위에 내려앉더니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두 번째 연주를 마치고 멈추자 주위는 적막했습니다. 갑자기 그 귀뚜라미가 통소 위에서 지지하고 울기 시작하더니 두세 번 울고는 튀어 갔습니다. 옥외의 귀뚜라미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귀뚜라미들의 악장(樂長)이 대법과의 성스러운 인연을 찬송했나 봅니다.

(제22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48만 478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